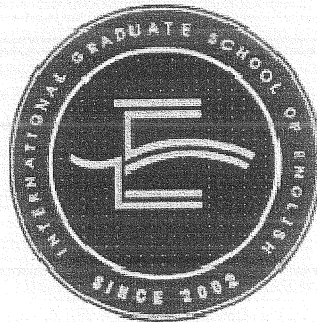


이 사 회 회 의 록

(2014학년도 제1차)



2014. 5. 7.

학교법인 혜제학원
(법인사무국)

학교법인 혁제학원

2013학년도 제1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7 인	2 인
채적임원	7 인	2 인
참석임원	7 인	2 인

1. 일 시 : 2013년 5월 7일 11:00 ~ 12:00

(회의소집 통보일: 2014년 4월 23일)

2. 장 소 : 혁제빌딩 9층 회의실(서울 강동구 성내동 448-10)

3. 임원 출석 현황

○ 참석 임원

- 이사 (7인) : 윤 균, 박남식, 문 용, 안영수, 박경일, 조준학, 이문상
- 감사 (2인) : 권보기, 김명준

○ 불참 임원

- 없음

4. 안건

- (1) 2013학년도 학사 보고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 (2) 2013학년도 결산서 심의 <부의안 제2014-1-1호>
- (3) 불용 고정자산 처분 승인의 건 <부의안 제2014-1-2호>
- (4) 총장 선임의 건 <부의안 제2014-1-3호>
- (5) 명예총장 선임의 건 <부의안 제2014-1-4호>

5. 회의 내용

윤 균

박남식

권보기

- (1) 의장의 개회사에 이어서 의안 순서에 따라 학교의 박남식 총장이 학교의 당면 현황 및 2013학년도 사업실적에 대해 참석 이사들에 보고를 하였으며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학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이 나타낸 훌륭한 성과에 대해 설명하였음. 현재 해외에서 박사 과정에 있는 졸업생이 이미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므로 향후 학교의 위상은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학교 내부적으로는 영어사용 환경을 강화하고 학교의 장점인 다양성을 더욱 살리기 위해 향후 입시원서 제출 시에 지원 사유를 영문으로 작성함을 의무화하고 학사 행정의 외국인 교원 참여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학교를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진 전체가 박 총장의 그러한 노력을 적극 지원할 터이니 영어교육분야에서 대학원이 앞으로도 계속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당부하였음.
- (2) 이어 부의안건 1호인 2013학년도 결산서를 심의하기로 하고 의장은 법인사무국장에게 요청하여 2012학년도 결산 개요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결산 안에 대한 감사 결과를 요청하자 권보기 감사는 모두 적절하게 처리되었다는 취지의 감사보고서를 낭독한 후 이어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 결과도 그러함을 밝힘. 그 후 의장이 결산 내역에 대한 이사들의 의견을 요청하자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이 있던 후 안영수 이사가 2013학년도 결산 내역은 지난번 이사회에서 승인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되었으며 일반운영경비 지출규모가 전기 대비 아주 소규모인 3백만원 이내 증가한 것에 나타나듯이 알뜰하게 운용되었음을 감안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제안하자 문용 이사가 동의하고 이문상이사가 재청하여 이사장이 결산안의 승인 여부를 표결에 붙인 결과 참석이사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자금예산 총액이 4,967,851,647원에 이르는 학교의 결산안과 자금예산 총액이 1,992,489,168원에 달하는 학교법인의 결산안에 대한 승인을 의결하였으며 관련 결산서는 편철 후 법인사무국에 보관하기로 함.
- (3) 이어서 부의안건 2호인 불용 고정자산 처분 승인의 건의 심의를 위하여 의장이 법인사무국장에게 내용 설명을 요청하자 법인사무국장은 신청된 불용자산 내역을 설명하였으며 이어 의장이 이에 대한

유근

박남식

권보기

이사들의 의견을 묻자 이문상 이사가 동 자산들은 주로 학교 설립 당시 마련한 가구로 재활용 힘들며 관련 전자 제품도 그 용도가 다 하였고 장부상 감가상각이 완료된 것임을 감안 원안대로 승인함을 제안하자 문 용 이사가 동의를 하고 조준학 이사가 재청을 한 후 이사장이 표결에 붙인 바 이사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승인의결함.

- (4) 계속해서 3호 부의 안건인 학교 총장 선임의 건 심의에 들어가자 범인사무국장은 현 박남식 총장의 임기는 2014년 8월 27일 종료됨을 보고함. 이에 의장이 후임 총장에 대한 이사들의 의견을 묻자 박 총장이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자리를 비운 후 관련 사항에 대한 얼마간 논의가 진행 된 다음 문 용 이사가 그동안 박 총장이 학교에 대한 기여나 업적을 감안하면 연임을 당연히 추천하는 바나 3기 중임은 너무 길지 않은가 하는 취지의 발언에 안영수 이사가 동의를 하였으며 이어 조준학 이사 등 다른 이사들은 그렇다고 지금의 총장에 버금가는 후보자를 찾는 것도 용이하지 아니함을 언급하며 만일 이사회가 인정하는 그러한 후보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계속된 논의에서 전체 의견은 이사장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것으로 모아졌음. 이에 앞서 자리를 비운 박총장도 함께 자리하도록 안으로 초대한 후 이사장은 이사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총장직을 12년간 계속함은 너무 장기간이라는 의견 개진도 존중하고 또 박총장의 리더쉽도 인정되므로 후임 총장은 다양성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면서 학교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 있는 후보를 직접 추천할 권한을 현 박총장에게 주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이에 문 용 이사의 동의와 박경일 이사의 재청이 있자 이사장이 표결에 붙인 바, 참석 이사 7인 전원의 찬성으로 동 절차를 거친 후 차기 이사회를 열어 후임 총장을 선임할 것을 결의함.
- (5) 이어 명예총장의 재선임 여부에 대한 안건 4호를 심의함. 본건은 차기 이사회에서 총장이 결정되면 그 때 논의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안영수 이사의 제안이 있자 이문상 이사가 동의하고 박경일 이사도 재청하여 의장이 표결에 붙인바 이사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차기 이사회서 논의하기로 의결함.

문용

박남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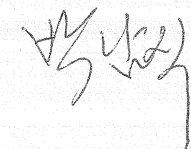
박경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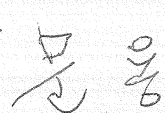
- (6) 폐회 선언에 앞서 의사회 회의록에 간서명을 할 임원을 결정하자는 이사장의 제안에 이문상 이사가 이사장, 박남식 이사, 권보기 감사 세 분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에 다른 이사 모두 다 동의하여 그렇게 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이사회를 마무리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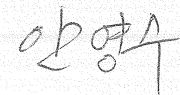
6. 폐회 선언.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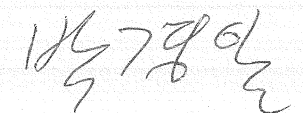
학교법인 혁제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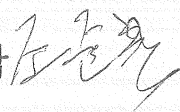
이사장 윤 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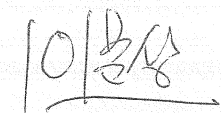
이 사 박 남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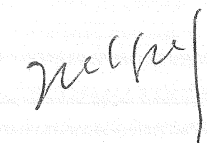
이 사 문 용 

이 사 안 영 수 

이 사 박 경 일 

이 사 조 준 학 

이 사 이 문 상 

감 사 권 보 기 

감 사 김 명 준 